이웃나라의 보통사람들 / 대만편

淨化特輯

중국사람들은 보통(普通)이라는 말대신에 통상(通常)이라는 단어를 쓰는 평시(平時)를 평상(平常)이라 하고 「흔히·자주」할 때 쓰는 말을 항상(恒常)이라는 말을 경상(經常)이라 쓰는 것이 정도의 차이인 성싶다。

보통 아닌 보통 사람들

「보통」이라는 말이 어느 구석엔가 일본냄새를 지니고 있고、깔끔하게 가르는 학술용어와 같은 느낌을 주는데 비해서 「통상」이라는 말은 두리몽실하고 포괄적인 중국인의 체취 같은 것을 풍긴다。어짰든 우리 한국사람을 제외하고는 온세상 사람들이 중국사람하면 얼핏 중공대륙에 사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고 나서부터는 중국인이라는 말을 쓰기가 여간 거북스럽지 않다。사람은 같은 중국사람인데 대만사람하면 대륙인과 대 구분하는 정치적 냄새가 가득하고、자유중국인하면 공산주의자와 갈라서 생각해야 하는 이념의 문제가 통겨나오게 된다。그렇다고 해서 현재 대만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화교(華僑)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하다。이처럼 정치적으로 가르고 이념으로 쪼개고 문화나 땅덩어리의 크기를 자로 해서 나누어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고 보면、현재 대만이라는 섬에 살고 있는 중국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보통사람을 고르기가 어렵다。보통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면 「보통이 아닌 보통사람들」이 있을 뿐이다。대만의 보통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반(潘)주임이나 진(陳)노인과 같은 분들을 예로 들려는 것은 그들의 직책이 보통사람들이 가지는 신분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르나 이들이 바로 대만의 보통사람들이고 또 보통사람들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진구(潘振球)··

중국청년반공구국단주임(主任)、그는 현재 지니고 있는 직책이나 학식·경륜 등으로 미루어 보통사람은 아니다。그러나 그는 적어도 보편적인 중국인을 길러내는 기관의 주임이다。해마다 1백만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을 여름·겨울 방학에 불러 모아놓고 심신을 단련시키는 국립청년훈련소(?)의 교장선생님과 같은 분이다。그에게는 접견실이 딸린 큰 사무실이 있고、전용승용차가 있고、그를 만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비서진이 있다。그가 관장하는 조직은 「작은 정부」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여서、정부 곳곳에 이 기관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고、대북(臺北)시내 신해로(辛亥路)에 세계 각국의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시설인 국제청년활동중심을 비롯해 화련(花蓮)、고웅(高雄)、팽호(澎湖)등등 전국 어디를 가나 청년들의 활동중심지인 유스호스텔이 있다。

몸에 밴 검소한 생활

그는 항상 검푸른 빛깔의 양복과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출근한다。자세히 보면 색이 바랬을 뿐만 아니라 양복감의 올이 배어나올 정도로 검소하다。검은색의 구두는 말끔히 닦여 있지만 창은 여러번 갈아댄 것임을 금방 알 수 있다。그가 특별히 검소함을 과시하기 위해 이러한 차림을 고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정말 검소하게 봉직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대만의 공직자들이 대부분 그러한 것처럼 반주임의 비서는 남자이다。지난 80년부터 81년사이 필자가 청년활동중심 기숙사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그랬고、금년 8월에 방문했을 때에도 사람은 바꿔었지만 역시 비서는 남자였다。1년에 이 기관을 찾는 외국의 고위공직자와 대학교수 등 각계 인사만 해도 수백명에 이르는 점으로 미루어 미모의 젊은 여비서를 채용해 손님접대를 시킬 만도 한데 중년의 남자비서를 두었다는 점에서 외국인이 보기에는 반주임은 보통사람이 아닌 보통사람이다。그냥 보통사람이라면 보통 그러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랐을 것이다。다른 보통사람들이 지성미를 겸비한 젊은 여비서를 두는데에는 그래야만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주임은 생각하는 것도 평범하다。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참으면서 기다리면 해결된다는 식이다。무리를 해가면서 해결해 놓은 것은 결국 또다른 문제를 만들어 놓고 만다는 점을 늘 강조한다。고궁박물원의 보물들이 거개는 3、4대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그는 예로 든다。

보잘것없는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그는 보이게、보이지 않게 식사기도를 한다。그는 크리스찬이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애써 구별하지는 않는다。구국단(球國團)활동에 신앙심을 갖도록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인생에는 여러번의 난관이 있게 마련인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를 참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70고령의 반주임이지만 소년들이 떨어뜨린 휴지 따위를 줍는 것은 귀찮은 일도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대륙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장도 지냈다는 그는 『빗나갔던 아이들은 기다리면 돌아오게 되어 있지만、귀중한 청년의 에너지가 국가의 동력으로 집결되지 못하고 사조나 유행을 좇는데 허비되는 것이 안타까왔을 뿐』이라고 말한다。

근면한 생활철학에 열심히 사는것즐거

○… 중국 사람들은 자기 형편대로 사는 …○
○… 것을 그들의 철학으로 삼고 있다. 그 …○
○… 들은 악착같이 벌어 한심스럽게 써버 …○
○… 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더우기 남의 …○
○… 취미는 모두 섭렵해야 하고 유행은 …○
○… 이르건 늦건 따라가 봐야 한다는 생 …○
○… 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

자신보다 직장을 소중히

필자에게 있어서 반주임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갈유신(葛維新)이라는 사람이다。현재는 구국단 해외부 부조장직을 맡고 있지만 80년에는 반주임의 비서로서 일한 사람이다。대만의 3대 명문으로 일컬어지는 국립정치대학을 나왔고 미국에서도 유명한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직장이라곤 한결같이 구국단이다。월급도 공무원수준밖에 안되고、신분보장이 크게 잘되는 곳도 아닌성 싶은데다가 학교 동창생들 가운데에는 장·차관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그저 묵묵히 비서일을 하고 있었다。운동선수처럼 짧게 깎은 머리에 반주임처럼 유행 지난 양복을 단정히 입고、손님이 찾을 때에는 늘 두손에 차를 받쳐들고 들어온다。40이 넘은 나이이지만、차 나르는 폼이 어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찻집의 사람들처럼 프로페셔널하지도 않다。겸손하나 당당함을 잃지 않고 있고、비서직이지만 전화만 받고 손님접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주임이 결정해야 할 모든 일의 준비에서부터 유창한 영어와 정치학석사라는 학식을 바탕으로 중요한 기획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구국단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현재 직위나 직책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찾아볼 길이 없고、직장에서 가정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당직 때에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업무와 관련된 서적들을 읽는 모습이었다。그를 아는 사람들은 「작은 반주임」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는데 반주임과 다른 점이 있다면、사무실 한구석에 부인과 딸의 사진이 놓여 있다는 정도이다。그리고 갈부조장이 쓰는 사무실의 에어컨이 주임 사무실 것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이고 여러개 놓여 있다는 정도이다。

대만에서도 갈부조장 정도의 실력이나 인품이면 오라는 직장이 많을 것이고 기업 같은 곳에서는 임원자리를 주고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권유할 때가 많았을 것이다。그러나 그는 자기 사무실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처럼 동요하지 않는다。여러모로 미루어서 그는 훨씬 더 큰 일을 맡아야 할 사람이지만、때가 오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거나 실망의 빛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보통사람이다。

반주임이나 갈부조장이 특별한 사람인데 좀 「사람냄새」를 풍기고 소심한 척한다고 해서 보통사람의 테두리안에 넣으려는 것은 아니다。자원이 좀 있다고는 하지만 공산대륙과 대치하고 있는 입장이고、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출에 의존해서 나라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대만이 지난해로서 1인당 국민소득 3천달러를 넘어선 데에는 이처럼 자신보다는 직장을 소중히 여기고、소속집단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자기분수보다도 오히려 밑지게 살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 자신보다는 직장을 소중히 여기고, 소속집단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자기 분수보다는 오히려 밑지게 살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의 대만은…

열심히 사는 것을 즐기면서

어딜 가나 「별난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지만 대만의 보통사람들은 어찌보면 열심히 산다는 것 자체를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 같다。

진문성(陳文誠)노인은 올해 예순네살이다。대북시 변두리 목책구(木柵區)에 사는 진노인은 젊은 시절에는 군장교생활을 오래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보잘것 없는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또우장(豆漿)이라는 콩국과 차오빙(炒餠)이라는 튀김 떡 따위를 만들어 파는 음식점인데、그의 부인과 국립대학에 다니는 큰딸이 종업원의 전부이다。

<3면으로 계속>

連載 栽培教室

新規會員을 爲하여

광활 ‖ (羌活)

○學 名=Angelica Koreana Maximowicz
○生藥名=羌活
○生藥部=뿌리(根)
○効 用=解熱、鎭經、頭痛、關節痛、神經痛등 驅風藥으로 쓰인다。

1、性 狀

미나리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이다。줄기는 그 높이 1m 내외에 달하며 잎은 세번 깃모양으로 갈라졌으며 갈라진 잎은 달걀꼴 또는 긴둥근꼴이고 끝은 뾰족하며 잎갓은 깊게 갈라지고 까실까실하다。

8월에 우산을 펼쳐 놓은 듯한 複繖形 꽃차례의 작은 흰꽃이 모여 핀다。莖葉이 白芷와 거의 같으나 약간 작은 편이고 잎이 거세 보이지 않고 연해 보이며 씨는 白芷、當歸씨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다。색갈이 약간 黃褐色이 많은 편이다。

當歸、白芷등은 開花結實뒤에 뿌리가 썩어서 죽어 버리지만 羌活은 이와 달라서 開花結實후 원뿌리는 썩어 없어져도 뿌리 옆에서 싹、즉 노두가 새로 생겨서 다시 자란다。

羌 活

2、栽培法

1、栽培適地

中北部 山間地帶서늘한 곳이 氣候상 적당하며 土質은 表土가 깊고 濕氣가 적당히 있는 東北向의 그늘이 약간 지는 埴質 壤土에서 가장 잘된다。南向의 사양진 곳이나 濕氣가 적은 곳은 生育이 좋지 못하다。

2、繁植

노두(蘆頭)로서 번식하는 蘆頭植付法과 종자로서 번식하는 育苗移植法이 있다。

蘆頭植村法은 가을 수확시에 뿌리위에 붙어 있는 노두를 떼어서 種根으로 本圃에 바로 심는 방법인데、蘆頭를 심으면 잔뿌리가 많은 편이어서 品質은 다소손색이 있으나 當年에 수확할 수 있는 이로움이 있다。

育苗移植法은 播種、育苗등 노력이 들고 2년만에 수확하게 되므로 재배상 불리한 점도 있다。잔뿌리가 적어서 품질이 좋은 편이다。

㉮播種時期 : 늦은 가을에 파종하여야 發芽가 잘 되며 形便에 의하여 가을에 파종 못하였을 때에는 겨울에 주머니에 씨를 넣어서 排水溝옆에 두고 가끔 물을 뿌리어 濕氣를 먹음케 하였다가 이른 봄에 파종토록 하는 것이 發芽가 잘 된다。종자를 그대로 두었다가 봄에 파종하면 대개 發芽가 잘 되지 않는다。

江原道 등지의 民間에서 말하기를 當歸、羌活은 가을에 파종하여 씨가 추위에 얼었다 녹았다 하여 열고 터져야 發芽가 된다고도 하는데 이것은 種子가 얼었다 녹았다 함에 의한 生理의 변화가 아니고 그동안 水分을 충분히 흡수하고 종자의 겹질이 軟化되어 싹이 트는데 도움이 되므로 발아가 잘 되는 것이며 봄에 파종하는 것은 그 종자가 대개 過乾되어서 發芽力이 적어지고 또는 過乾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봄기후가 乾燥現象이 발아되지 않는 것이 많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그렇지 않으면 採種直後인 9~10월에 파종하여도 發芽가 되고 過乾되지 않게 종자를 모래와 섞어서 地下埋藏하였다가 봄에 따뜻한 방 아랫목에 약 20일간 주머니에 넣어 發芽를 촉진하여 파종하여도 발아되는 것이 立證하는 바라 하겠다。

㉯苗床 面積 및 播種量 : 10a에 대하여 苗床 33㎡이 필요하고、종자는 5·4ℓ 내외가 필요하다。

㉰播種方法 : 苗床을 깊이 갈아서 150cm넓이의 두둑을 만들어 잘 골린후 흩어뿌림으로 씨를 배게 뿌리고 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엷게 흙을 덮어주고 짚을 깔아 준다。

이 식물은 發芽의 힘이 약하여 새싹이 올라올 때에 흙이 단단하거나 두터우면 땅속에서 썩어 버리는 수가 있으므로 흙을 얇게 덮어주어야 하며 혹은 흙을 덮지 않고 짚만을 덮어주기도 한다。

㉱育苗 : 發芽가 되면 짚을 걷어주고 거름을 줄 것없이 그대로 배게 키운다。苗床에서 肥料分이 많았다든가 묘가 드물어서 묘가 크게 자라면 不良苗가 된다。[illegible]

3、定植

[illegible] 뿌리가 꾸부러지면 뿌리가 쪽 뻗지 못하고 잔뿌리가 되므로 뿌리를 바로 심어야 하며、가을에 심을 때에는 흙을 약간 두껍게 덮고、봄에 심을 때에는 흙을 엷게 덮는다。

苗가 굵은 것은 건재로 하거나 버리는데 굵은 것을 심고자 할 때에는 苗頭를 대칼로 파고 심으면 꽃대가 적게 올라오기도 하는데 努力이 많이 들고 보통 시행하지 않는다。

4、管理

가을에 심은 것은 4월 초순에、봄에 심은 것은 심은 뒤 2주일 정도 지나면 싹이 트고 活着이 된다。7~8월경에 꽃대가 올라오는 것이 있으면 採種할 것 외에는 캐어버린다。꽃대를 잘라주면 된다고도 하나 栽培經驗으로는 꽃대를 잘라주어도 역시 뿌리에 심이 박히어서 藥用으로는 할수없게 되었었다。

5、施肥·病虫害

밑거름으로서 堆肥 1000kg、過石 40kg、草木灰 60kg을 시비하고 웃거름으로서 複合肥料 40kg을 8~9월에 2회로 나누어서 施肥한다。5~6월경에 成育 [illegible]

3、收穫·調製

定植한 그해 늦은 가을에 캐어서 蘆頭는 따로 두었다가 種根으로 심도록 하고 뿌리는 물에 씻어서 陽乾 調製한다。노두는 바로 심거나 또는 겨울동안 움속에 묻어 두었다가 봄에 심으며 10a에 심은 것에서 20~30a에 심을 노두를 얻을 수 있다。收穫量은 乾根으로서 120kg 내외이[illegible]